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드단6418 혼인의 무효
원 고 갑 (1980년생, 남)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피 고 을(외국인, 1991년생, 여)
최후주소 부산
변 론 종 결 2017. 9. 14.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3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주문과 같다.

제1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3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 국적의 피고는 2016. 12.경 ***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의 입국 후 2017. 1. 3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사실, 피고는 2017. 4. 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와 잠시 동거하다가 외국인등록증과 현금을 가지고 2017. 5. 22.경 가출한 사실, 피고는 가출하면서 원고에게 '이혼하자면서 나는 나쁜 사람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사실, 피고는 가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연락두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동거하다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곧바로 가출하여 소재불명인 점을 알 수 있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단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이 사건 혼인신고는 민법 제 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